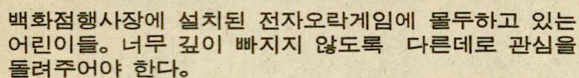


어린
순간
재미
中毒
심각

에 전주부터 어머니와 어린
이들의 호소다. 추석과 10
월연휴를 보내면서 어린이
들의 호수머니의 시간에
어유가 많아져서 부쩍 늘
었다고. 鄭惠英(신삼선)은
말한다. “전자오락에 빠져
공부와 생활일기를 등하야하
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문
제는 엄마지갑, 아빠호수머
니, 친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鄭惠英은
어린이를 가두는데 전자오
락에 빠져 차차 비행의선에
전조드리는 경우가 전지영의
모로 어린이들이 죄악들이
오든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윤음을 많이 쓰는 눈치기보
이면 일단 전자오락에 빠
져있지 않겠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오락과 함께 어린이
들을 순자의 재미에서 해
어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TV와 민화영양이다.

자기제언이 부족하고 어
른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린이들 중에는 반쪽노릇
TV앞에 붙어있다가 숙제
를 잊거나 소홀히 해오느
경우가 많다고 李月中교감



간 폭력을 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
다.

○ 그런 만화경들을 보지 않
으면 친구들끼리 대화가 안
통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
들이 폭력을 통해서만 정의
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어
서 걱정"이라고 하부도尹
在玉씨 33세를永登浦丁汝

숙제도 뒷전...엄마지갑 뒤지기도
공격성 조장하고 사고력 빼앗아

무조건 막지말고 건전한 흥미 유도해야

(서울) 김민기 기자 전했

다.

또 VTR의 보급과 함께 있고 있는 것이 만화영화의 폐해. 어린이들 사이에는 심리묘미 비디오 테이프가 유행하면 '비디오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는 경계나 우려가 있다. '정신'의 케산, '하인켄', '포인마' 등 일본만화책을 그대로 베

矣島(은)는 말했다.

[illegible]

이제는 TV 전자오락에
종속된 어린이들을 바른길
로 이끈다고 무조건 못하
게 막아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발달심과 더 큰 호기
심만 불러일으키기 때문
이다.

오랜이름과 대학을 다닌
 나를 잊었다는 대신 오랜이름의
 도이강이나 나쁜놈을
 해스스로 자제하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이 전자오락실에 한
 개가 보거나 TV 프로그램
 만화영화들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와 함께 건전
 한스포츠책 읽기, 음악
 한잔이름이 흥미를 느낄만
 한 것을 읽는 것, 제시한
 어스스로 관심을 돌리도록
 록이라고 전문가가 아닌
 한다.

△金順德기자▽



만화검열관

YWCA 어린이부 幹事 朴英淑씨

Y W C A 어카이부 산사 朴英淑
(36·사진)는 뜻밖에 만호공이란
소리를 듣게됐다. 1추월에 두세번씩
은만호가게를 찾아 어린이들을 데
어 10여권의 만화를 단숨에 읽어내곤
한다.

을 "
 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
 다.] 그 조정을 잘 정하였다.
 장조의 대산이 되어야 할 선생과
 회화하자나 남문제를 부각시키고
 심지어는 선생들의 비행이 등장하기
 일고 그 후로 『장조』, 『조각조』



to 88.3.13

"불량투성이... 父母가 추방앞장을"

1.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배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패배한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일본이 패배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별반 이상이 없었으나 계속 시
정온구(時定溫)를 보내자 효과 가 나타나
기 시작, 최근에는 작가가 고집하는
편지를 보내 오기도 했다.

차씨는 4월부터는 우수(雨)만화작가·
교수·인물(人物)을 추천, 만화(漫)화
를 읽고 각 부(部)별로는 우수(雨)만화작가들
전, 명예(名譽)달노수(雨)만화(漫)화
모든 부(部)가 모니터가 돼 불만(不
만)을 추방(追放)하고 호소(呼)한다.

【李榮星기자】